

한전 “직원 전원 나주로”

〈광주·전남공동혁신도시〉

일부 잔류설 일축...1500명 8월부터 이주
400여 협력·부품업체 연쇄 이전도 탄력

광주·전남공동혁신도시(이하 빛가람도시)로 옮겨오는 한국전력공사가 그동안 논란이 됐던 '분할 이전'이 아닌, 정부 방침대로 '전체 이주'하는 것으로 사실상 확정했다.

한전의 완전 이주가 확정됨에 따라 400여개에 이르는 협력·부품업체도 빛가람도시에 본사 이전 및 지사 설립 등을 추진할 가능성이 커졌다.

이 경우 한전과 함께 이전하는 한전KDN과 한전KPS, 전력거래소 등 국내 대표적인 에너지 관련 공공기관들의 에너지 클러스터 구축도 한층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한전은 28일 “‘본사 사원 전원 이주’라는 기본 원칙 외에 이견은 없다”며 오는 8월 신사옥이 준공되는 대로 부서별로 이주가 시작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전 홍보실 관계자는 “외부에서 부서 잔류설 등이 여전히 흘러나오고 있지만 (전원 이주) 원칙은 변함없다”며 “본사 내부적으로 효과적이지 않은 방안은 대해 논의는 되고 있으나 부서를 서울과 나주로 분리하는 내용은 없다”고 잘라 말했다.

앞서 한전은 지난해 초 일각에서 흘러나온 ‘전력산업 구조개편안’에 따라 한전을 송·배전 회사, 민간과 경쟁하는 판매회사로 분리해 민영화한 뒤 전력 판매회사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 등 분할 이전설에 휩싸이기도 했다. 판매 분야가 분할되면 300여명의 직원이 나주로 이전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다.

또 이전이 완료되면 당장 사원 1000여명이 독신생활을 해야 하는 상황에서 ‘가족 해체’에 부딪힐 것을 우려해 일부 부서가 서울에 잔류할 것이라는 소문도 꾸준히 흘러나왔다.

1425명이 근무하게 될 한전 신사옥은 1월 기준 72%의 공정을 보이고 외벽공사가 한창 진행 중이다. 대지면적 14만9372㎡, 연면적 9만9307㎡에 지상 31층, 지하 2층 규모로 빛가람도시의 랜드마크 역할을 하게 되며 오는 8월 완공, 11월 이전 완료 예정이다.

전력거래소와 한전KPS는 10월에 이전하며 한전KDN은 12월로 계획돼 있다.

이건철 전남발전연구원장은 “총자산 146조원대의 한전 이전은 혁신도시의 한 축만 담당하는 것을 넘어 광주·전남의 동반성장 및 전력에너지 산업의 네트워크와도 관계가 깊다”며 “한전 관련기업의 이전이 계속되면 빛가람도시가 명실상부한 자족도시로 거듭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임동률기자 exian@kwangju.co.kr



육군 31사단 장병들이 27일 AI(조류인플루엔자) 예방 차원의 살처분을 위해 나주 세지면의 한 오리 농가에 방역복을 입고 들어가고 있다. /김진수기자 jeans@

구멍 뚫린 방역망... 설 대이동 비상

AI 공포

‘이동중지’ 失效... 설 연휴 전국 확산 고비

전북에서 시작된 조류인플루엔자(AI)가 충청과 전남 등지로 광범위하게 퍼진 가운데 이르면 오는 29일부터 귀성이 시작될 설 연휴 기간에 AI 전국 확산의 최대 고비가 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경기도와 충청 등 5개 지역에 ‘이동중지 명령’(Standstill)을 27일 한시적으로 발동했지만 민속대이동이 이뤄지는 설 연휴에 사람과 차량에 의한 AI 확산 우려를 낳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날 “AI의 확산을 막기 위해 27일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12시간 동안 경기도와 충남·북·대전시·세종시에 일시 이동중지 명령을 발동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미 전남과 충청 등지에서 동시다발적으로 AI가 발병해 이번 이동중지 명령이 실효를 거뒀을지는 미지수며, 이미 AI 방역망에 구멍이 뚫렸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실제 방역당국은 AI 발생 초기인 지난 19일 오전 0시부터 20일 자정까지 48시간 동안 전남·북도와 광주시

의 가금 농장과 축산 종사자, 축산 차량 등을 대상으로 이동중지 명령을 발동했지만 며칠 후 해남 등지에서 AI가 발병했다.

AI 확진 판정을 받은 해남 송지면 씨오리농장에서 지난 29일부터 오리 가 폐사했고, 이 농장 주인이 운영하는 나주·영암의 오리 농장에서도 잇따라 폐사가 발생해 사실상 이 지역에 내려졌던 이동중지 명령이 아무런 효과가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AI 바이러스의 잠복기 7~21일을

감안했을 때, AI가 정부의 임시 이동중지 명령 이전에 광범위하게 퍼졌을 가능성도 크다.

특히 설 연휴 기간, 고향을 찾거나 성묘를 다녀오는 등 국민 대다수가 한꺼번에 이동하기에 사실상 AI를 차단하기가 어렵게 됐다.

한편 정부는 27일 “AI 확산과 관련해 전남 5억원 등 전북, 경기, 충남 등 4개 지자체에 총 20억원의 특별교부세를 지난 26일 추가 지원했다”면서 “AI 농장 종사자와 살처분 참여자 2047명 가운데 AI로 인한 인체감염 사례가 없었는지만 건도 없다”고 밝혔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27일 나주 광주·전남공동혁신도시(빛가람도시)에 건립중인 한국전력공사 신사옥의 외부가 거의 마무리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 1월 기준 공정을 72%의 신사옥은 올 8월 완공되며 11월 이전이 완료된다. /김진수기자 jeans@

학교설립 60주년 (1954~2014)

60년 전통의 기독교 명문대학
광신대학교

입학문의 학부 (062)605-1114
대학원 (062)605-1115

“2월 17~22일 금강산서 이산가족 상봉”

정부, 北에 내일 판문점서 적십자 실무접촉 제의

정부는 북한이 동의한 이산가족 상봉 행사를 다음달 17~22일 금강산에서 갖고 북한에 공식 제의했다.

정부는 27일 오전 판문점 연락관 채널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의 전화통지문을 북측에 보냈다고 김의도 통일

부 대변인이 전했다. <관련기사 5면>

정부는 통지문에서 “이산가족들의 염원을 고려하여 2월 17일부터 22일 까지 5박6일 동안 금강산에서 이산가족 상봉행사를 개최하자”고 제안했다.

정부는 또 “상봉 행사 준비와 관련

한 실무적인 문제를 협의하기 위한 남북 적십자 실무접촉을 29일 판문점 북측 지역인 통일각에서 개최하자”는 입장을 전달했다.

김 대변인은 “북측이 우리의 제의에 긍정적으로 호응해 오기를 바란다”면서 “이번 이산가족 상봉이 원활하게 진행돼 남북관계에 새로운 계기가 만

들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북한은 이날 오후 4시 판문점 남북 연락관이 업무마감 통화를 할 때까지 이산가족 상봉 일정 제안과 관련해 별다른 답변을 통보해 오지 않았다.

김 대변인은 “이번 상봉 행사는 지난해 추석 계기 상봉 행사가 연기된 것을 하는 것이기에 그때 합의한 인원과 선정된 분들이 참석하는 행사가 될 것”이라고 설명, 당시 합의된 남북 각 100가족을 대상으로 행사가 추진될 것임을 확인했다. /연합뉴스

“여수는 미래다”

여수는 美來다 미래

준비된 새정치 기대주 김동재의 여수사랑 이야기

이달의 추천도서

김동재 저 13,000원

Healing BOOKS 출판사업본부 TEL. 070 8880 8555
www.i-healing.co.kr

여수의 아름다움을 아십니까?

아름다움이란 ‘알차다, 알맞다’의 뜻으로, 경제의 ‘내실’과 정치의 ‘정의로움’입니다. 누구나 살고 싶은 경제적으로 풍요롭고 정치적으로 선진화된 여수. 이미 우리에게 미래(美來)로 주어진 아름다운 여수를 함께 만들어 갑니다.

여수의 아름다움은 바로, 당신입니다.

전 여수경영인협회 회장, 희망자치전국연대 공동대표, 정책네트워크 내일 실행위원, 전 여수세계박람회 여수시 준비위원회 기획홍보본부 위원장, 전 여수 경실련 공동대표, 광주전남시민포럼 공동대표, 휴엔텍 대표, 주)휴엔 대표

저자는 여수고등학교와 연세대학교를 졸업한 뒤 지역에서 경제활동을 해오면서 여수의 경제와 지역을 누구보다 잘 파악하고 있다.